FX Market Daily

2025-03-10

전일동향

전일대비 4.40원 상승한 1,446.8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4.40원 상승한 1,446.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40원 상승한 1,447.8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수출업체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에 상단이 제한되며 1,446원 중심으로 횡보했다. 오후장에서도 환율은 고용지표 경계,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박스권 장세를 지속하며 1446.8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80.4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7.80	1449.80	1441.00	1446.80	1446.30
엔화	975.79	985.99	973.41	977.80	-
유로화	1555.80	1574.72	1554.04	1569.3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7	-6.76	-14.12	-27.8
결제환율(수입)	-1.35	-5.85	-12.3	-24.4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부진에...1,44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46.80) 대비 0.75원 상승한 1,445.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2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5.1만명 증가해 예상(16.0만명)을 하회했고, 실업률은 4.1%로 지난달(4.0%) 대비 소폭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화정책 변경을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달러화는 파월 의장의 경제 낙관론에 하락폭이 일부 제한되며 전장대비 0.37% 하락한 103.81pt에 마감했다. 한편, 아직 경기침체를 우려하기 힘들다는 시장의 평가 속 뉴욕증시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일부 완화되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반등하여 상승 마감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 순매수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달러 약세와 함께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1.50 ~ 1450.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96.0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75원↑

■ 美 다우지수 : 42801.72, +222.64p(+0.5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04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